

2025년 12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개최

연 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경영진 (명)	총 인원 경영진 외(명)	대면	온라인	서면
1	12.18. 14시	연합뉴스TV 12층 대회의실	10/10	2	2	14	○	

○ 회의 참석자 명단

-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구종상, 최은수, 이경화, 김광석, 전계순
김병수, 안서연, 백명희, 박세진, 임태순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 경영진 외 : 심의부장, 시청자센터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13	-	-	1	14	-	14

나. 사업자 반영

구 분	수 용	의견 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14	-	-	14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p>주요 뉴스를 소개할 때 뉴스 제목과 함께 이미지, 기자 이름이 함께 소개되는 코너가 있는데, 좋은 안내로 생각됨. 다만, 개선했으면 하는 경우는 현장성이 강조되는 영상이 듣보이게 보도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내일 수능 예비 소집일, 특검 황교안 전 총리 체포, 노만석 검찰총장 출근길 묵묵부답 등 현장성 영상이 강조되어 보도되면 좋겠습니다. 또 제목 중심이 아니라 윤산화력 붕괴 매몰자 브리핑처럼 제목 중심이 아니라 구체적 내용을 자막에 표기해서 이해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청취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막을 읽고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은수 부위원장)</p>	<p>12월8일자로 방송 화면을 보도정보 자막입력 시스템을 개선(티커, 폰트 등) 적용하여 다양하게 자막 정보를 시청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겠습니다.</p> <p><25.12월 조치></p>	'25.11월
보도	<p>지난 6월 9일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통일부와 국방부(합참)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은 점이 연이어 보도되었습니다. 통일부는 기존의 소극적 태도에서 선회해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해 강력한 중지 요청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한반도 긴장 완화와 접경 지역 주민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방부(합참)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같은 안보 이슈는 정책의 일관성과 정부 부처 간 조율, 그리고 국제 공조가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고려할 때, 정부 내 입장 차이가 신속히 조율되어 일관된 메시지와 정책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쟁점 사안에 대해 연합뉴스TV가 정책의 방향성과 정부 부처 간 입장 차이,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까지 짚어주는 심층 보도를 해줌으로써 관련 사안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해를 높여주길 기대합니다.(박세진 위원)</p>	<p>12월 19일 [초대석] 통일부 “내년목표는 ‘한반도 평화공존’ 원년 만들기”라는 주제로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스튜디오 초대해서 심층대담을 진행하여 시청자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p> <p><25.12월 조치></p>	'25.6월
총 건수		2건	

라. 시청자 권리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 '25. 01. 01.~ '25. 12. 31.)'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김홍태	1969.11.7	(현)법률사무소 대운변호사	-	18.7.1.~26.6.30
안지연	1989.06.27	(현)동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 초빙교수	-	23.02.01~27.01.31
최미연	1983.09.05	(현)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	-	24.09.01~26.08.31
김정원	1993.03.07	(현)한양대학교 ERICA 미디어학과 교수	-	25.09.01~27.08.31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시청자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 활용 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실적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필수 토의안건 사전공지 및 상시적 의견 개진 창구 운영 (사전 검토를 위한 위원 게시판, 단체 채팅방 운영 등)	<input checked="" type="radio"/>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연합뉴스TV 홈페이지에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25. 1. 1. ~ '25. 12. 31.)

구분	성명	전 · 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위원장	구종상	현)동서대학교 방송영상학과 특임교수 전)MBN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언론 학술	
부위원장	최은수	현)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AI 석학교수 전)MBN 보도본부장	AI경영학회	경제	
위원	이경화	현)학부모정보감시단 대표 전)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	학부모정보감시단	학부모 단체	
위원	김광석	현)중부대학교 고양창의캠퍼스 교수 전)KBS 미래방송센터건설단장	한국방송학회	언론 학술	
위원	전계순	현)한국소비자교육원 원장 전)한국소비자교육원 사무총장	한국소비자교육원	소비자 단체	
위원	김병수	현)중소기업중앙회 조사통계실장 전)중소기업중앙회 공제마케팅실장	중소기업중앙회	경제 단체	
위원	안서연	현)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동국대학교 겸임교수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 단체	
위원	백명희	현)도담약국(김포) 대표 전)대구 파티마병원 약제과	대한약사회 경기도지부	과학기술 단체	
위원	박세진	현)한양대학교 정보사회미디어학과장 전)연합뉴스TV 시청자평가원	한국엔터테인먼트학회	문화 단체	
위원	임태순	현)중소벤처기업인증원 교육평가실장 전)중소벤처기업인증원 인증개발팀장	좋은변화	인권 단체	
변동사항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운항 재개 이틀 만에 6천명 탑승...아직은 관광객만 북적', 한강버스 운항 재개 초기의 이용 패턴과 시민 분위기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며 현장성을	아직은 출근시간대 운영까지 본격화 한 상황은 아닙니다. 내년 운행이 본격화할 때쯤 교통수단으로서의 가능성 관련 보도에 말씀 참고하여 다뤄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확보한 보도로 평가된다. 특히 정책 보완 사항을 언급해 향후 교통 정책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데 기여했다. 다만 교통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통계적 자료, 안전성 정보, 전문가 분석이 보강된다면 공공적 가치와 정책적 깊이를 갖춘 더욱 완성도 높은 보도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구종상 위원장)	보겠습니다.			
기타 *시청자 불만활용	홈페이지 개선 필요...뉴스 찾기 다소 불편, 시각 효과 떨어져, 연합뉴스TV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을 YTN과 비교할 때 정보와 시각효과가 취약합니다. 최소한 검색창은 메인 화면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검색창은 메인 화면에 있지만, 연합은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합니다. 또한 모바일 앱을 겨냥해 만들어져 있어 병렬 정보 방식이 아니라 직렬 배열 방식이어서 정보 제공이 취약해 보입니다. (최은수 부위원장)	저희가 지난 6월에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지금은 개선 해놓은 상태입니다. 홈페이지에 어떤 부분을 보셨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우선, 검색창은 메인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렬식으로 돼 있던 거를 병렬식으로 다 바꿔었어요. 우리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때문에 저희가 지난 6월에 대대적 개편을 했습니다. 지금은 YTN하고 홈페이지가 사실상 똑같은 형태입니다. 또 뉴스피드도 광고 대행업체 선정을 해서, 인기 기사와 최근 AI뉴스 추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도	증가하는 청소년도박 기사를 시청하면서, 청소년도박의 심각한 현실에 대한 우려,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대처 등의 구조로 늘 같은 포맷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껏 해왔던 보도 방식의 반복, 보도 내용의 동일성 등은 아쉬움을 남겨 주었습니다. 현장활동에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도박행동은 사행성을 담은 온라인게임과 무관하지 않았고, 합법 도박사이트가 오히려 중독을 만들어 낸다고 하소연하는 사례도 있었고, 도박사이트 영업사원으로 취직하는	저희가 아마도 경찰청 자료를 단순 통계 형태로 쓰는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장 사례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고 홍보가 되고 또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지를 저희가 반영된 기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청소년이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언급들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진신고 운영에 대한 홍보를 시작한 만큼 추후 보도에서는 보다 분명하고 적극적인 재발방지조치의 핵심을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검거된 청소년 운영자 면담, 문제가정의 부모 면담 등을 통해 도박접근 통로, 상담기관의 효과성 여부, 청소년접속불가 관련 기술적조치현황 등 각종 제도의 장단점 소개, 정책의 효과성 여부 등에 대한 질의와 실질적인 대안제시등이 있었으면 합니다.(이경화 위원)				
보도	[연합뉴스TV 스페셜] 404회 : 보이는 물, 보이지 않는 물, 지금까지 수돗물에 대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정으로 공급되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막연한 불안감으로 수돗물을 피하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었습니다. 수돗물의 음용률이 10% 이내로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는데, 그 원인이 수질보다는 노후배관에 따른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건강에 선도적으로 앞장설 수 있도록 수돗물에 대한 후속보도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김광석 위원)	저희 연합뉴스TV 스페셜은 PD들이 만드는 제작물입니다. 한 20분 정도의 좀 짧은 제작물이긴 하지만 저희 PD들이 매번 심혈을 기울여서 다큐를 만들고 있는 코너입니다. 이번에는 수돗물을 다뤄봤고 상당히 지식적인 차원에서 괜찮은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특히 노후배관이 문제가 많다는 걸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제 때는 수돗물을 먹었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다 수돗물을 먹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물은 다 사 먹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제작에 매진하겠습니다.	○		
보도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지역의사제, 지역 필수의료 공백 메울까,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인 '지역의사제' 도입에 관한 이슈를 다룬 것은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당사자 간의 견해 차이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하여 지방에 살고 있는 국민이 의료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	'탐사보도 뉴스프리즘'은 기자들 리포트 위주로 만든 제작물입니다. 이번에 지역 의사제가 조금 이슈가 되고 있어서 다뤄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의료 뉴스와 관련한 아이템으로 염두에 두고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지역의사제'는 피할 수가 없는 정책인데,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후속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김광석 위원)				
보도	소비자단체 "쿠팡 김범석, 피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사죄해야" 이번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이 예측되는 바 피해에 대한 보상과 예방책도 강구해야 할것입니다. 향후 연합뉴스TV에서도 이제는 공공재가 된 듯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을 심층 취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계순 위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계속 보도하고 있고 대로 책에 대한 기획 리포트 등도 별도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		
보도	[찾아라! 성공 레시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K-김의 성공 비법은? 전국 김 수출에서 약 36%를 차지하고 있는 전라남도가 그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우수한 품질의 신규 김 품종 개발과 김의 성장을 방해하는 파래와 규조류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김 활성처리제 개발 등 생산에서 가공판매까지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전라남도 관계자들의 인터뷰까지 보면서 전라남도 김 산업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도루묵처럼 이름의 유래가 재미있거나 그 지역만의 특색있는 상품에 대해 시리즈로 만들면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병수 위원)	저희가 '찾아라 성공 레시피'라는 코너는 기업 소개 제작물 프로그램인데요. 주로 중소기업들 중에 좋은 상품을 만들고 있고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는지 일종의 요리 레시피를 알듯이 그 비결을 알기 위해서 찾아가 직접 취재해서 전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K-김이 반도체 못지않게 한국 대표적인 음식으로 지금 소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 저희가 그러면 김이 어떻게 성공하게 됐는지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제작을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		
보도	임윤찬 공연 중 유튜브 영상 소리가...얼마나 심했는지 감도 안 오는 최악의 '관크', 연말연시를 맞아 공연관람이 늘어나고 젊은 연주자들의 활약으로 공연 예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현 시점에 시의적절한 보도였다고 평가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예민함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기본 예절을 넘어선 심각한 문제로 다	임윤찬 공연 같은 경우는, 클래식 공연장에서 유튜브 영상 재생소리가 나고, 벨소리가 나고 해서 문제가 컸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뷰가 100만 뷰 이상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졌었던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12월 23일 날 연합뉴스TV가 주최하는 송년음악회 뮤지컬 공연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루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성숙한 공연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기획할 것을 제안합니다. 클래식 공연 문화가 일찍 발달한 유럽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소개하여, 관람 예절을 엄격하게 지키고 아티스트를 존중하는지 비교 보도하는 것은 시청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타 방송사들이 트로트나 발라드 등 대중음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연합뉴스TV가 클래식 뮤직 및 공연 예술 문화 전반에 특화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기획하여 채널의 품격과 공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안서연 위원)</p>	<p>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클래식이나 뮤지컬 이런 분야에서 저희 연합뉴스TV가 매년 공연도 주최하고 해서 기여하는 바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공익적인 활동들을 좀 더 늘려나갈 생각입니다.</p>			
보도	<p>반박에 재반박...극한으로 치닫는 '레이더 조준' 진실공방, 현재 국제사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 간의 군사적 갈등 쟁점과 그 경과를 상세하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복잡한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을 시청자들에게 다만이 사안이 대한민국의 안보 및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다루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서연 위원)</p>	<p>레이더 조준 중일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서로 안보적인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말씀 주신 대로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어서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까지도 예의주시하겠습니다.</p>	○		
보도	<p>[현장의재구성] 상처 입은 루브르...그런데 웃는 이들이 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발생했던 도난 사건을 대중문화 콘텐츠, 특히 광고 분야에서 어떻게 해학적으로 유머러스하게 승화시켰는지를 보여주어 흥미롭고 신선한 기획이었습니다.(안서연 위원)</p>	<p>'현장의재구성' 루브르 박물관은 저도 못 보고 있다가 이번에 말씀해 주셔서 저도 한번 봤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있던 한 1500억 어치의 왕실 보물이 대낮에 털린 건데, 터는 과정이랑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코미디 같은 영화 소재가 될 정도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좀 가볍게 터치하면서 또 시청자에게 정보를 줄 수 있는 영상 구성을 많이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p>	○		
보도	<p>지난 11월 말 쿠팡에서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쿠팡 사</p>	<p>쿠팡 사태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우리나라 청문회</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쿠팡에 제품을 납품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여러 가지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쿠팡 가입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와 더불어 쿠팡을 주요 판로로 삼아온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 피해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쿠팡 가입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이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법적 책임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후속 보도를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백명희 위원)</p>	<p>에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쿠팡 사태가 한참 장기적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읽기를 비롯해 변호사 대담 등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뤄왔습니다. 경제읽기에서는 소비자 측면을 좀 더 강화해서 대담을 이어갔습니다. 지금도 쿠팡 사태는 끝난 게 아닌만큼, 계속 상황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팔로우업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p>			
보도	<p>[뉴스초점] 갑질·조폭 연루설·소년범 의혹 논란...연예계 '뒤승승', 시청자들이 실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각 사안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형사·민사상 쟁점과 관련 법률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등인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은 다소 부족했다고 평가됩니다. 전문가 구성 측면에서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박나래 씨 관련 리포트에서 동일한 자료 화면이 반복 사용되며 약 6분가량 이어진 점은 시각적으로 다소 단조롭게 느껴졌는데, 다양한 관련 자료나 그래픽·쟁점 정리 화면 등을 보완하면 정보 전달력과 완성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세진 위원)</p>	<p>최근에 박나래 등 연예인들의 둘러싼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문화평론가뿐만 아니라 사실은 변호사 분들도 출연을 하여 다방면으로 뉴스를 다뤄봤습니다. 말씀하신 박나래 영상 관련해서는 저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닙니다. 전문가 구성 측면에서는 저도 보도 채널이어서 영상을 충분히 갖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연예인들이 공중파나 지상파에 출연을 하는 상황에서 앞의 방송사들은 영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좋은 게 많을 데 비해서 저희는 영상도 좀 단조로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희 보도가 연예인들 관련해서는 항상 영상이 단조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한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양한 다른 방식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p>	○		
보도	<p>미국방 "한국 같은 동맹엔 혜택...中과 세력 균형 추구", 하나의 코너 안에서 미국방 장관의 발언, 미국의 대중 전략, 한반도 평화 구상, 대북정책, 중국 군비통제 백서 등 관점과 층위가 서로 다른 이슈를 한꺼번에 다루다 보니,</p>	<p>미국방 장관이 한 발언에 대해서는 봉영식 교수가 출연하여 앵커랑 서로 대담을 해가면서 아마 하셨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봉영식 교수가 미국 쪽 굉장히 안보 전문가입니다. 방송에서도 해설을 잘하고 식견도 있습</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개별 사안에 대한 심층 해석이 부족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특히 헤그세스 장관의 “모범 동맹” 발언은 향후 한국의 국방비 증액 압박,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무기 도입 구조 등에서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국내외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맥락과 파급 효과가 보다 깊이 있게 다뤄졌다면 심층 보도의 취지가 더 잘 살아났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박세진 위원)</p>	<p>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봉영식 교수랑 서로 질문 내용을 조정을 해가면서 원고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좀 더 다양하게 저희가 다뤄봤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p>			
보도	<p>「보안 인증 있다고 과징금 감경받은 쿠팡...실효성 의문, 과거 유출 사고에서 인증 보유를 이유로 과징금이 감경된 사례를 짚어준 부분은 제도의 취지와 현실 간의 괴리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었고, 향후 인증 유지 요건 강화와 사고 발생 시 재평가 제도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기한 점도 높게 평가합니다. 이번 보도가 인증 제도의 개선과 기업 정보보호 책임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심층적이고 균형 잡힌 보도를 지속적으로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태순 위원)</p>	<p>쿠팡 사태 이후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의 보안인증 부실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추적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p>	○		